

공약 재탕에 복불까지…임기 4개월 앞 절반이 ‘공수표’

광주·전남 광역의원
공약 이행 점검



<10> 전남 서부권 이행률 29.6%

서부권 전남 도의원들은 임기를 넘 달 남겼지만 아직도 공약의 42.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5년 전에 이미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조성사업을 ‘재탕’했고, 특정사업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오히려 죽어선 사례도 있었다.

25일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2022년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서부권 도의원 18명의 공약 19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약 이행률은 2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서부권에는 목표 5명, 해남 2명, 영암 2명, 무안 2명, 영광 2명, 완도 2명, 신안 2명, 진도 1명 등 총 18명이 도의회에 입성했다. 절반에 달하는 9명은 무투표 당선 등을 이유로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초선 의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통’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전남 서부권 도의원 9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모두 196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1인당 21.8개의 공약을 내건 셈으로, 한 사람이 40개의

도의원 18명 196개 공약 남발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 21개 뿐
무투표 당선 의원 공약 확인 불가

공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내용을 분류해보면 경제 부문이 48개(24.5%)로 가장 많았고, 건설 46개, 복지 46개, 생활 46개, 교육 10개 등이 있었다.

공약의 63.8% 비중을 차지하는 125개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노인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등 지역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공통 공약이었다. 한 초선 의원은 ‘맞춤형 복지사업’ ‘영유아 시설 개선’ 등 12개 공약을 내걸었는데 모두 지역 특색을 갖추지 않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71개(36.2%) 지역 맞춤형 공약 중 실제로 지켜진 공약은 29.6%(21개) 비중에 그쳤다. 30개 공약(42.3%)은 3년 7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20개(28.2%)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가운데 지방선거가 있기 5년 전인 2017년 이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시설조성 사업을 내세운 ‘재탕’ 공약이 있었다. 특정 지구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역을 대표할 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축제는 몇 차례 개최된 뒤 지금은 흐지부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jh@kwangju.co.kr



“교복나눔장터서 새 학기 부담 덜어요”

지난 23일 광주 북구 우산동 새마을회 상설 교복나눔장터에서 새마을회 회원들이 다음달 5일 본격적인 교복 판매를 앞두고 동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중고등 학교로부터 기증 받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승용차 3100만원…광주시, 수소차 구매 지원

오늘부터 보조금 신청…취약계층·다자녀 가구 등 우선 배정

광주시는 총 4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6일부터 수소차 106대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수소승용차 104대와 수소버스 2대다. 지원 금액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는 데, 승용차는 1대당 3100만원을, 버스는 1대당 3억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해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특히 전제 승용차 물량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1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차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해 친환경차 보급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다. 개인이나 사업자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간편하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 지역 내 현대자동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

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맺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서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수출 말소는 5년), 운행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보조금 반납 의무는 차량을 넘기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종고자 거래 시 계약서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총 673억원을 투입해 승용차 1481대, 버스 44대, 청소차 4대 등 총 1529 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17.4t, 온실가스(CO₂) 2968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4만5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현재 광주에는 진곡·동곡·임암·벽진·월출·장동·신촌·매월 등 8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4조 3000억 규모 국고 건의 사업 발굴·점검

166건 신규 발굴…AI·에너지 대전환 시대 겨냥

전남도가 내년도 신규 국고 건의 사업 166건을 새롭게 발굴했다.

전남도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국고 건의 사업을 점검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7년 국고 건의 사업 사전 보고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377건(4조 3000억원) 사업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보고회는 내년 국고건의 사업 확보 추진을 앞두고 민선 8기 ‘시군 정책비전 투어’ 등과 연계한 신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설득 논리와 사업 타당성을 점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첨단산업 분야로

구분되는 AI 자율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 우주발사체 핵심부품 기술자립 기반 구축, 고전력 반도체 모듈 실증·평가 플랫폼 구축, 민간 발사체 주적·레이저 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와 관련, 차세대 전력설비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분산에너지특구형 인공지능 전환(AX) 자율운영 가상발전소(VPP) 플랫폼, 고효율·고신뢰성 해저 전력시스템 개발·실증, 국내 해역 특성을 고려한 소형 해상 풍력단지 유지보수 특수선박(SOV) 국산화 개발 등도 포함됐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그린바이오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여

수·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 케이김 수출 단지 조성, 차세대 AI 수산가공 팩토리 구축 등이 제시됐다.

호남고속선·경전선 연결선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 SOC 사업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보고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과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보완해 보고회 또다시 열고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AI와 에너지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전남은 이미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라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고, 그 비전은 정책과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초광역 협력 사업과 22개 시군 정책비전 투어를 연계해 지역별 비전을 국고사업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김 인기에…전남 김 수출 역대 최고

지난해 4억3200만 달러 기록

K푸드의 대표 주인 전남산(産) 김이 지난해 4억32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려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김 수출액은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은 5억 4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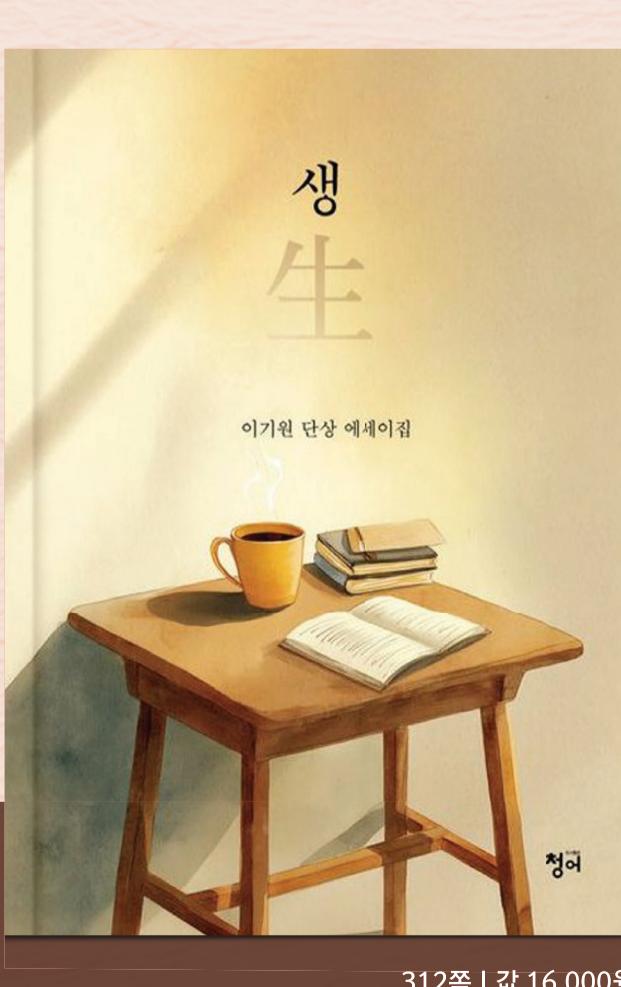
전남의 김 수출은 2021년 2억 370만 달러→2022년 1억 9160만 달러→2023년 2억 4940만 달러→2024년 3억 6440만 달러 등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김 수출 목표를 7억 달러로 설정하고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4235억 원을 투입하는 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와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산 수산물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케이김(KGIM) 집적화 단지 조성과 김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마른김 가공공장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태어날 生(生) 이냐,

살아갈 生(生) 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의산(동아서점)